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58호 1판 (음력 12월 2일)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문화전당 운영체계 개편 '기대半 우려半'

예술감독 체제서 실장 중심제로 시스템 전환

일괄 교체로 운영체계 혼선·콘텐츠 축소 가능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현재 문화전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아시아문화원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문화부도 오는 2월께 문화전당장 공모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 구축업무의 혼선, 현안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선임된 문화전당 수장이 바뀌고 업무 담당자까지 대폭 교체되기 때문이다.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문화부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정부 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로부터 문화전당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아시아문화원에는 경영지원실, 공연사업실, 전시사업실, 교육사업실, 창·제작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신설된다. 기존 예술감독 중심으로 운영되던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정보원 등의 운영체계가 실장 중심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5개원 예술 감독들과 위촉 계약을 일괄 해지했다.

문화전당측이 아시아문화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5개원 별로 중복된 전시, 공연 등 업무를 기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했기 때문에 새 운영체제의 필요성도 고려됐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조직개편에 맞춰 각 실(室)을 맡을 실장, 센터장, 연구소장의 영입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 예술감독을 일괄 교체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선이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지난해 4월 전임 예술감독이 물러나면서 창조원에서 업무차질과 혼선을 빚은 바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시아문화원의 조직을 불과 5개월 만에 재편하는 것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아시아문화원의 한 직원은 "새로 선임될 인사들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그동안 체계를 잡은 문화전당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전당의 한 예술감독은 "새로운 책임자가 오면 일정 부분 변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문화전당의 문화창조 기능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승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월에 공모가 진행될 문화전당장 선임절차가 오는 4월께에야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화전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모기간과 선임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또 신임 문화전당장이 새롭게 문화전당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업무에 대한 대폭 수술도 배제할 수 없어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관 첫해를 맞아 조직안정과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문화전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공군 제공〉

핵미사일 탑재 'B-52' 한반도 상공에 떴다

북한 핵실험 나흘만에

추가도발시 응징 결의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 투입됐다가 괌으로 복귀했다. 〈관련기사 2면〉

미국의 전략무기가 애초 예상보다 빨리 전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B-52는 오전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정오께 오산기지 상공에 도달했다.

B-52는 오산기지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 미 공군 F-16 2대 등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저공비행으로 오산 상공을 지나간 후 괌기지로 돌아갔다.

B-52의 한반도 상공 전격비행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은 2단계 군사조치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배수량 10만4000t급)와 오하이오급(배수량 1만8000t급) 핵잠수함, 오키나와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랩터) 등이 단계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에 못오는 문재인 광주서 세확산 안철수

文, 의원들 반대에 방문 취소…安, 오늘 5·18민주묘지 참배

주승용·장병완 13일 탈당

4월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무게중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당 세력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당장, 이번 주에는 오는 13일 전남의 주승용 의원(여수 을)과 광주의 장병완 의원(남구)이 탈당에 나서는 등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탈당에 대해)지역 당원들과 논의를 마쳤으며 의정보고를 마치는 오는 13일 탈당할 계획"이라며 "주승용 의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의 8명 현역 의원 가운데 더민주 소속은 강기정(북 갑), 박혜자 의원(서 갑) 등 두 명만이 남게 됐다.

주승용 의원도 예정대로 오는 13일 탈당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남의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도 오는 17일 결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탈당 바람은 전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대부분 탈당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오는 17일까지 결단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의원이 탈당에 나설 경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탈당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윤석·김영록 의원 등도 선거구 획정 이후,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당에 잔류하고 있는 박혜자 의원(서구 갑)도 사실상 탈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은 박영선 의원과 양동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탈당을 언제 할 것이냐. 민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다그쳐 당혹스러웠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지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방문을 추진했다가 강기정, 김승남 의원 등의 반대로 이를 취소하는 등 호남에서 더민주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국민의 당(가칭)'의 안철수 의원은 11일 광주와 전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바람 몰이에 나선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광주로 이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광주 집단지성과 대화를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순천에서 대강연회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경남 김해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새누리당 35%, 안철수 신당(국민의당) 21%, 더민주 19%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41%)이 더민주(19%)를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에는 4선의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 을)이 더민주를 탈당, 국민의 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여대 U대회 체육관 편법 대여 의혹 ▶6면

亞 문화원류-바이칼 ▶18면

유영, '피겨 샛별' 떴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